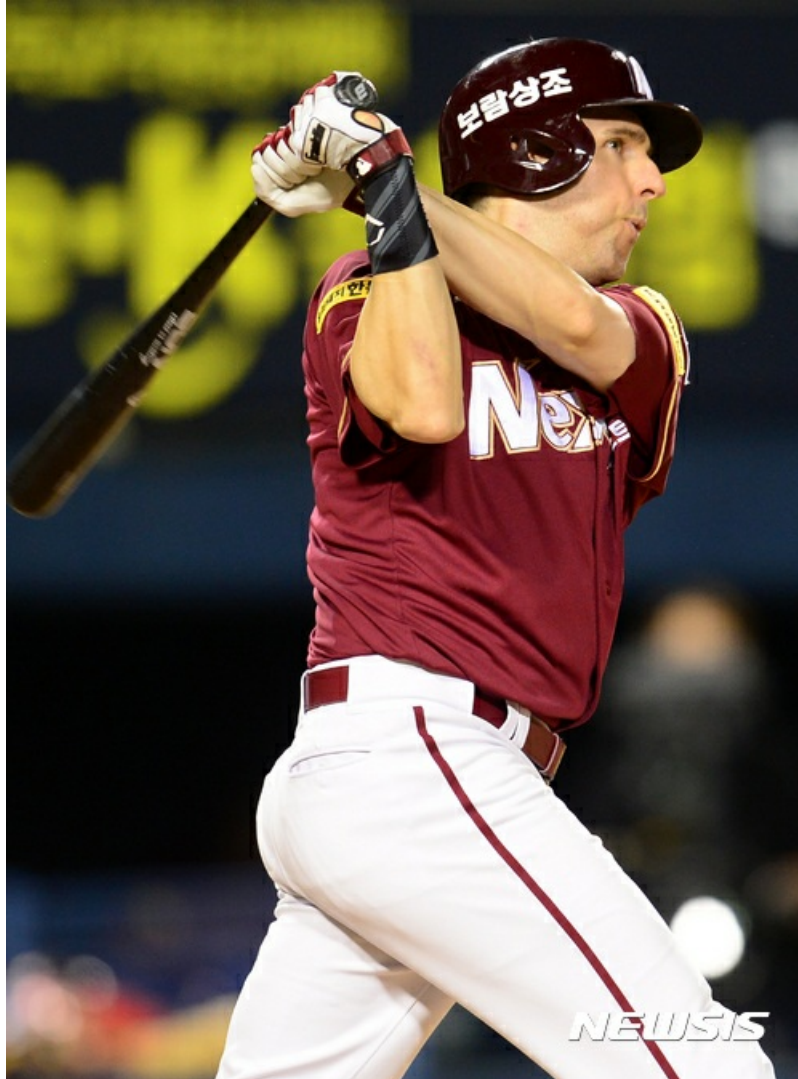


## [프로야구]답답한 외국인 타자...넥센·LG '동병상련'

등록 2017.05.30 21:43:22 | 수정 2017.05.30 22:20:51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KBO 리그 넥센 히어로즈 대 LG 트윈스 경기, 9회초 원아웃 넥센 대니돈이 안타를 치고 있다. 2017.05.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넥센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동병상련'이 느껴지는 맞대결이었다.

30일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넥센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맞대결이 넥센의 3-1 승리로 끝났다. 양 팀 외국인 타자가 나란히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대니 돈(33)은 외국인 타자로서 화끈한 방망이를 자랑하지는 못했지만, 타율 0.295(417타수 123안타) 16홈런 70타점으로 무난한 모습을 보였다.

돈과 재계약을 택한 넥센은 돈의 부진으로 시즌 개막부터 골머리를 앓았다.

돈은 이날까지 올 시즌 13경기에서 타율이 0.121(33타수 4안타)에 불과하다. 아직 홈런은 하나도 치지 못했고, 장타는 2루타 2개 뿐이다. 타점도 하나도 없다.

계속되는 부진에 돈은 퓨처스리그에서 더 긴 시간을 보냈다. 지난달 중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돈은 10일 마산 NC전에서 복귀해 4번타자로 나섰다,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돈은 이를 만에 또다시 2군으로 내려가야했다.

4월 한 달 동안 26경기에서 타율 0.316(95타수 30안타) 5홈런 23타점으로 활약했던 LG의 루이스 히메네스(29)는 5월 들어 슬럼프에 빠졌다.

이날까지 5월에 나선 23경기에서 타율 0.238(84타수 20안타) 2홈런 7타점에 그쳤다.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양상문(56) LG 감독은 히메네스의 부진이 길어지자 지난 주말 SK와의 3연전에서는 4번 타자로 나서던 히메네스의 타순에 변화를 줬다. 히메네스를 7번 타자로 기용하고 양석환을 4번 타자로 투입했다.

장정석(44) 넥센 감독과 양 감독은 이날 다시 외국인 타자들을 중용했다.

지난 26일 돈을 다시 1군으로 불러올린 장 감독은 26, 27일 고척 삼성전에서 돈을 대타로만 기용했다가 이날 5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시켰다.



【서울=뉴스시스】추상철 기자 =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KBO리그'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 1회초 2사 주자 1루상황에서 LG 4번 히메네스가 포볼을 골라낸 후 1루 베이스로 향하고 있다. 2017.05.07.

scchoo@newsis.com

장 감독은 "오늘 돈을 선발 라인업에 포함할 생각이었다. 우익수로 출전시키려고 했는데 채태인의 허벅지 상태가 좋지 않아 1루수로 출전한다"고 전했다.

전반적인 타격 침체에 1군 엔트리에서 4명을 교체하며 변화를 준 양 감독은 히메네스를 다시 4번에 배치했다.

하지만 돈은 4타수 1안타로 타격감이 크게 좋아진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히메네스는 결정적인 순간에 병살타를 쳐 찬물을 끼얹는 등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돈은 2회초 무사 2루의 찬스에서 땅볼을 쳐 2루주자를 3루로 진루시키는데 만족해야했다.

4회 1사 1루에서 좌익수 뜯공으로 물러난 돈은 7회 선두타자로 나서 투수 앞 땅볼로 물러났다.

히메네스는 1회말 2사 1루에서 2루수 뜯공에 그쳤고, 4회에도 내야 뜯공으로 돌아섰다.

0-2로 끌려가던 LG가 이천웅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한 6회 1사 1, 2루의 찬스에서는 3루수 앞 병살타를 쳐 추격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히메네스는 9회 1사 1루에서도 중견수 뜯공으로 물러나 찬스를 연결해주지 못했다.

그나마 돈은 9회초 1사 후 들어선 마지막 타석에서 우전 안타를 치며 작은 위안이라도 안겼다. 히메네스는 마지막 타석까지 끝내 침묵했다.

[jinxijun@newsis.com](mailto:jinxij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